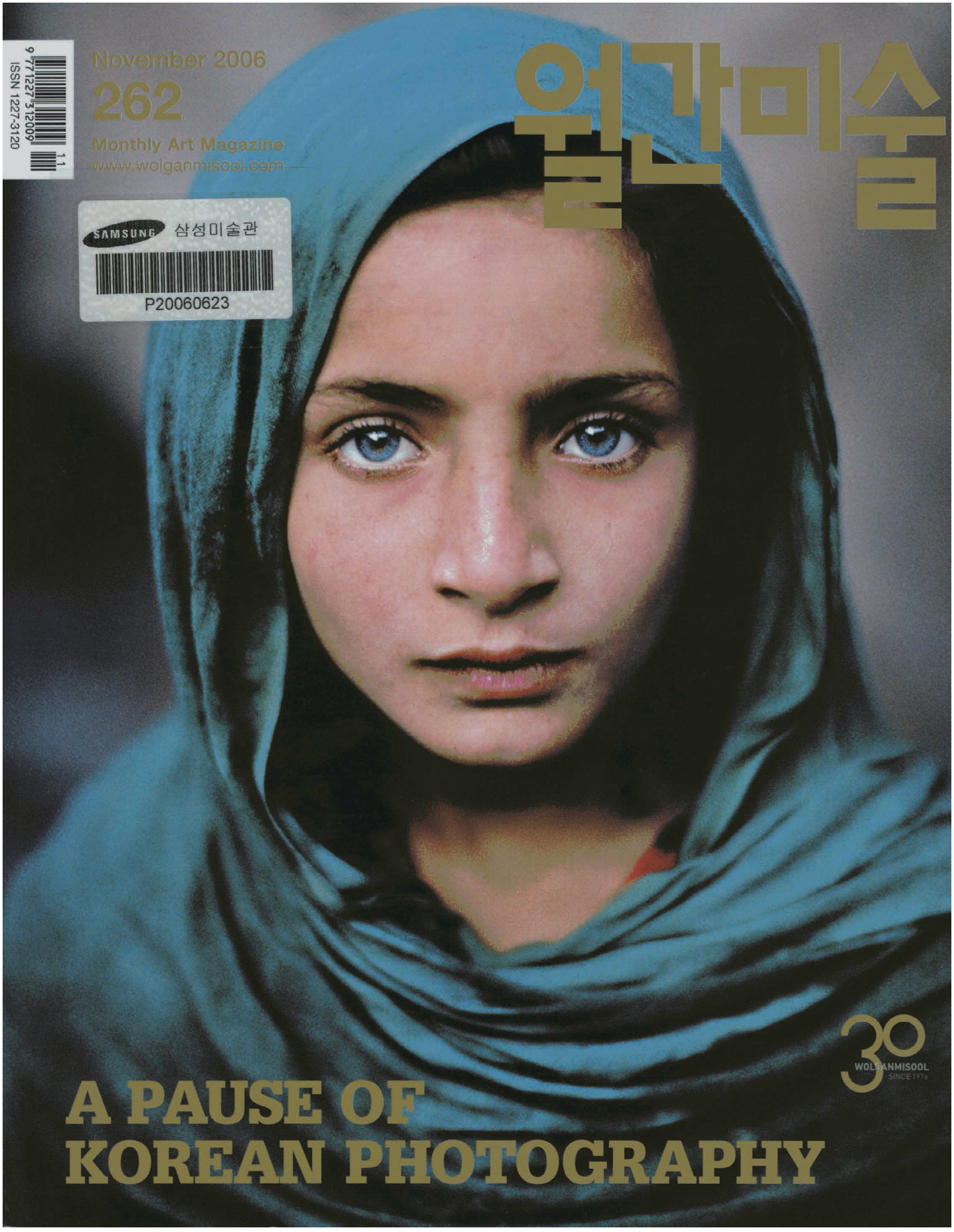

November 2006
262
Monthly Art Magazine
www.wolganmisool.com
ISSN 1227-3120

SAMSUNG 삼성미술관
P20060623

월간미술

30 WOLGANMISOOL SINCE 1976

A PAUSE OF KOREAN PHOTOGRAPHY

우리 예술의 든든한 뒷받침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한국메세나협의회, '기업과 예술의 만남' 2차 결연식

기업은 이윤을 사회에 환원하면서 사회발전에 이바지하고 예술계는 사회구성원의 지친 감성을 달래주는 활동으로 사회적 역할을 담당한다 할 것이다. 이 두 집단이 사회 공헌에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 파트너쉽 협약을 맺었다. 10월 26일 신라호텔에서 열린 '2006 기업과 예술의 만남 2차 결연식'이 바로 그것. 한국메세나협의회(회장 박영주, 왼쪽 사진)가 주최한 이번 자리에서는 9개 기업이 오케스트라, 극단, 극장 등의 예술단체와 든든한 파트너십 결연식을 맺고 지원을 약속했다. 앞으로 1년 동안 함께 길을 가게 된 결연 기업과 단체는 LG연암문화재단과 극단 수박, 삼성문화재단과 댄스씨어터 까두 등이다.

한국메세나협의회 박영주 회장은 이날 결연식을 이끄는 자리에서 "기업과 예술단체의 만남을 결혼식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 둘의 만남은 사회의 풍요로움을 더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숙명여대 김소영 교수를 주축으로 '창조시대의 문화마케팅'이라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어 그 의의를 더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을 대신하여 축사를 대독한 박양우 문화관광부 차관은 "어려운 가운데서도 기업의 예술지원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도 2007년 예산에 정책지원금을 확보하여 이러한 활동에 힘을 더할 것"이라고 밝혔다.

결연에 참가한 기업과 문화예술단체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물관에 있어 수장품의 의미와 관리에 대해 의견교환

서울역사박물관, 수장품 정책과 관련한 국제심포지엄 열어

서울역사박물관(관장 김우림)은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서울역사박물관 국제심포지엄을 박물관 내 강당에서 개최했다. 10월 26, 27일 양일간 열린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도시역사박물관 수장품 정책의 새로운 지평'이라는 주제로 국내외 20여 명 초청연사의발제와 토론이 이어졌다.

박물관이 행하는 각종 활동의 근간이 되는 수장품은 해당 박물관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기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심포지엄은 수장품 활용과 관리의 나라별 사례와 현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로서 의미있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수장품과 관련하여 매우 민감한 문제인 유출문화재의 환수문제를 국제법적 시각에서 다뤘는데, 요즘 국외유출 문화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되고 있는 우리 나라는 물론

수장품 정책 심포지엄 초청연사 및 참가자

이집트와 인도의 박물관 전문가도 깊은 관심을 보였다. 또한 작년 ICOM 서울대회에서 논의되었던 무형문화유산에 관한 논의도 함께 이뤄져 그 다양함을 더했다.

박물관 운영도 브랜드화가 필요하다

구겐하임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 기념 초청강연

전세계 5곳에서 독특한 건축미로 주목받는 구겐하임박물관을 운영하는 구겐하임재단의 토마스 크렌스 관장 초청강연회가 10월 30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국립중앙박물관 개관 1주년을 기념하여 기획된 이번 강연회의 주제는 〈박물관 건축, 박물관의 미래(Museum Architecture and Museums' Future)〉.

크렌스 관장은 박물관 운영에 있어 독특하게 '브랜드' 개념을 도입하여 관람객 수를 엄청나게 끌어올리고, 구겐하임을 세계화하는 데 성공하는 등 뛰어난 전략가로서의 면모를 보여왔다. 이에 한 경제전문지로부터 "박물관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 지에 대한 규칙을 다시 쓴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번 강연회는 그의 박물관 철학과 세계 박물관 경영의 추세와 미래를 전망할 좋은 기회가 되었다는 평이다.

경기도의 새로운 미술 중심지로 자리잡겠다

경기도미술관 , 10월 25일 안산시에 준공

10월 25일 경기도 안산시 초지동(화랑공원내)에 자리잡은 경기도미술관(사진) 준공식이 열렸다. 총사업비 259억원을 들여 2년의 공기 끝에 개관한 경기도미술관은 연면적 8227㎡, 지상 2층 규모로 기획전시실, 상설전시실, 정보검색열람실, 다목적홀, 아트숍, 카페테리아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있다.

건물 외관을 전부 유리로 시공하여 투명성과 쾌적성을 강조한 경기도미술관은 주변지형과 대비된 형태로 그 존재가 확연히 드러나며 돛단배를 연상시켜 도시미관에도 큰 미감을 제공한다는 평이다.

개관개념전으로는 〈호안 미로, 상징의 세계전〉이 내년 1월 25일까지 무료로 열린다. 이번에 전시되는 작품은 146점에 이른다. 미술관 측은 내년에 기획전시로 〈경기미술 100년과 경기미술가 100인전〉, 〈루브르박물관소장품전〉 등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관시간은 평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동절기는 오후 6시에 폐관)이며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과 추석에는 휴관한다. 문의(031)481-7044

내년 베니스를 준비합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안소연 씨 선정

사진 : 조정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위원장 김병익)는 내년 6월 10일부터 11월 21일까지 이탈리아 베니스에서 열리는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館)커미셔너로 안소연 삼성미술관 리움 학예연구실장(사진)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안소연 실장은 1961년생으로 이화여대에서 불문학을 전공하고 동 대학원 미술사학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큐레이터학교(Ecole Nationale du Patrimoine), 일본 문화청 초청 펠로우십을 거쳤다. 또한 국립현대미술관 학예연구관(1986~1996)을 역임하고 현재는 삼성미술관 리움 학예연구실장에 재임 중이다. 안소연 실장이 기획한 주요전시로는 신진작가 발굴에 역점을 둔 〈청년작가전〉(1987), 〈젊은 모색전〉(1992), 〈아트스펙트럼전〉(2001, 2003, 2006), 〈사춘기의 징후전〉(2006) 등이 있다. 안소연 실장은 "비엔날레 한국관이 진정한 국가관의 의미를 찾을 수 있는 전시를 구상 중"이라고 밝히고 "출품 작가는 조만간 발표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52회 베니스비엔날레 국제미술전은 끊임없이 변화를 거듭하고 있는 현대 미술계의 작가 고유의 다양성과, 관객에 대한 그들 주장의 동시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며 전시감독은 미국 출신으로 뉴욕 현대미술관(MoMA)의 큐레이터를 역임하고 현재 예일대 학장으로 재임하고 있는 로버트 스토(Robert Storr)이다.